

「영광 법성진 숲쟁이」의 특성 분석과 경관관리 문제점 고찰

최재웅¹⁾ · 김동엽²⁾

¹⁾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²⁾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The Characteristics of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and Perspectives on the Problems of Landscape Management

Choi, Jai-Ung¹⁾ and Kim, Dong-Yeob²⁾

¹⁾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²⁾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Beopseongpo has been one of the most thriving ports of the Jeolla region since the Goryeo Dynasty (918-1392). During the time of King Seongjong (r. 1469-1494) of Choseon Dynasty, a navy garrison had been deployed and the port was named Beopseongjin, as recorded in the 1485 edition of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Gyeongguk daejeon). Dangsang forests and Bibo forests have been maintained by local residents since hundreds of years ago. Dangsang forests have been applied to the scale of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as 「Scenic Site No. 22」, and to investigate the conservational problem of the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and seashore. The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consists of a Dangsang forest and two Bibo forests. But, the presence of the Dangsang forest has not been well known to the public. Although the wooded fortress has been somewhat disturbed by cultural activities, the Dangsang rituals have been held until the present every January 15 by lunar calendar. On the other hand, the seashore in front of Beopseongpo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cenic view. It was one of the reason that the 「Wooded

Corresponding author : Choi, Jai-ung,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Suwon 441-707, Korea,
Tel : +82-31-290-0284, E-mail : juchoi0530@korea.kr

Received : 9 August, 2010. **Revised** : 13 October, 2010. **Accepted** : 9 December, 2010.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had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 cultural property of 「Scenic Sites」. However, the sandbar was reclaimed in 2009 to build commercial buildings. An integrated plan should be prepared to conserve the landscape of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which requires close partnership among local residents, experts, and local government. At present, four new buildings have been built. Although we have lost the sandbar, i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visibility of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Key Words : *Historic cultural landscape, Dangsan forests, Bibo forests, Landscape visibility, Landscape View Point.*

I. 서 론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 갯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4대 관광지로 삼고 있으며, 이들을 잘 보전, 관리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훌륭한 문화자산이지만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법성진성이 있는 영광 진내리는 순천시의 4대 관광지와 비슷한 성격의 법성진성, 갯벌, 불교유적지를 모두 한 눈에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서 국내에 유일한 고장이다. 해안경관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名勝) 제22호인 「영광 법성진 숲쟁이」(靈光 法聖鎭 숲쟁이)가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숲뿐만 아니라, 해안가 갯벌이 조망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법성진성의 성벽이 훼손된 채 잡목 등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으나, 기단석과 그 위의 성벽 특히, 당산나무가 있는 곳에 곡성(曲城)이 남아 있는 등 잔존 성벽이 많으므로 낙안읍성과 같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법성진 숲쟁이는 법성진성 내외에 있는 것으로서, 법성진성은 조선시대에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해안가에 조성된 성이다. 법성진성은 당산숲·비보숲을 갖고 있으며 바다, 갯벌과 함께 훌륭한 해안경관을 이루고 있다. 당산숲·비보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수백 년 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

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그동안 당산숲·비보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장동수·김학범, 1995; 윤영환 등, 1998; 박재철, 1998; 김정태 등, 1999; 최재웅·김동엽, 2000; 2009; 남연화·윤영환, 2002; 신상섭, 2004; 강현경 등, 2004; 이상훈 2005; 최재웅 등, 2009). 이러한 당산숲·비보숲의 조형양식은 민간의 마을뿐만 아니라, 읍성, 산성 등 행정관서 관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되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상섭, 2004; 최재웅 등, 2009). 명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법성진성 경관의 핵심요소인 갯벌이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갯벌 매립과 그 위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전통문화경관 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근래에 해안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갯벌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한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와덴해 3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과 갯벌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고, 간척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광 법성진 숲쟁이 즉, 법성진성 당산숲·비보숲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와 함께 갯벌의 현상 변경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명승으로서의 법성진성 숲쟁이 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영광 법성진성 숲쟁이는 법성진성과 숲이 포구와 어우러져 특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민속행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조선시대 수군 진의 모습과 파시로 변창했던 법성진의 영광을 현재까지 전해주는 등 역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큰 명승지로 평가되어 명승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그림 1, 5 참조). 숲쟁이는 법성포마을에서 흥농 방향의 지방도로 고개 마루 부분에 좌우측으로 산 능선을 따라 약 300m에 걸쳐 조성된 숲으로, ‘쟁이’란 재, 즉 성(城)이라는 뜻으로 ‘숲쟁이’란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821-1번지 등이고, 문화재지정구역은 32필지, 27,397m²이며, 관리단체는 영광군(영광군수)이다”(문화재청, 2007). 진내리에 소재하는 「법성진성」은 도지정 기념물 제205호(2002, 11, 27일 지정)이며, 1988년부터 도 지정 기념물 제118호이었던 「법성리의 느티나무」는 2007년 2월 1일에 해지됨과 동시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22호 「영광 법성진 숲쟁이」로 지정되었다. 성밖의 비보숲이 있는 법성리도 포함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대상지는 마을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당산숲이 있는 법성면 진내리(鎭內里)이다.

그림 1은 법성진의 옛 모습을 담은 고지도인 법성진지도(法聖鎭地圖)로서, 성벽숲과 포구의 수군 기지를 볼 수 있다. 북쪽 성벽 쪽에 열식되어 있는 이 성벽숲은 북쪽의 바다에서 봤을 때 법성진성의 시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기 위해 심은 비보숲임을 알 수 있다. 성벽숲 위쪽 지역은 지금은 매립지 논으로 되어 있어 바다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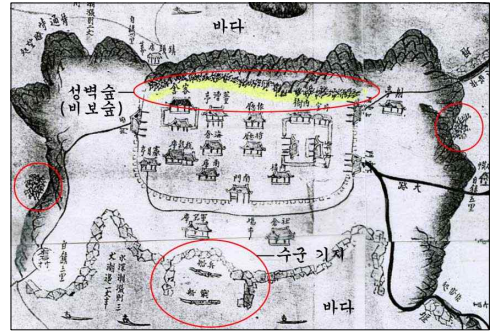


그림 1. 법성진지도

습을 볼 수 없게 지형이 변했지만 법성진 지도를 보면 이 부분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법성진성은 법성 포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작은 동산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포구 뱃길이 있는 곳에는 돌로 만든 방파제 내에 병선(兵船)이 정박해 있는 수군 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곳은 앞이 트인 바다가 아니고 바다 물길이 내륙으로 길게 들어온 만(灣)의 지형이다.

2. 연구방법

첫째로, 법성진성 숲쟁이를 구성하고 있는 당산숲·비보숲의 실태를 측정·분석하고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갯벌 매립지와 신축건물이 해안경관의 조망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그림 2). 법성진성의 규모와 성 안팎의 당산숲·비보숲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실태조사를 2004년에 실시하였고, 2008년에 포구의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장을 답사한 후, 2009년에 새로이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의 규모는 남아 있는 성벽 잔해를 실측하였고, 조선 후기 지도인 법성진지도(규장각 소장)를 참조하였다. 당산숲·비보숲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폭, 길이 등을 실측하였고, 수목의 그루 수, 흉고직경 등을 실측조사 하였다. 수목조사에서 활엽수는 흉고직경 40cm 이상, 곰솔 등 침엽수는 흉고직경 30cm 이상의 것만을 조사하였다.

조망권 고찰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국가지정

표 1. 영광 법성진성 숲쟁이에 대한 실태조사 경과.

구분	조사시기	연구내용
- 현장답사 - 1차 실태조사	- 2004년 음력 5월 5일 - 2004년 11월	- 단오제 행사 참관 - 숲의 현황 실태조사
- 매립지 현장답사	- 2008년 12월	- 매립이 거의 완료된 실태 확인
- 2차 실태조사 - 현장답사	- 2009년 7월 - 2009년 5, 10월	- 숲의 현황 보완조사 - 조망권역 고찰
- 현장답사	- 2010년 6월	- 매립지내 4개 신축건물 확인, 조망권역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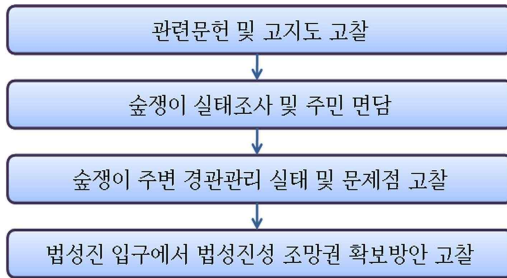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체계도.



그림 3. 영광 법성진 숲쟁이 현황.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문화재 현상변경 실무 안내집」 등의 문화재청 자료 및 현상변경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조망권 분석에서는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거리, 대상물의 높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치지형도와 Auto Cad 200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면도 등을 작성하고, 조망점에서 법성진 숲쟁이가 조망되기 위해 필요한 매립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선을 제시하였다. 한편, 마을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법성진성 숲쟁이의 과거와 현재 모습 및 당산제 내력 등에 대한 고증을 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영광 법성진 숲쟁이의 실태 및 물리적 특성

영광 법성진 숲쟁이는 하나의 당산숲과 두개의 비보숲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5,000 지형도에 나타난 현황도는 그림 3과 같다.

1) 당산숲

당산나무가 있는 곳은 서쪽의 직선 성벽에서 반원형으로 튀어 나온 곡성(曲城)이 있는 곳으로 성벽 구조가 가장 온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다(그림 4a). 곡성으로부터 성 안쪽으로 8m 지점에 당산나무인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고 바로 옆에 당집이 있다(그림 4b). ‘법성진성 횡단 마을길’ 위쪽은 당집과 노거수가 눈에 잘 띄지만, 마을길 아래쪽은 경사가 급해지면서 팽나무인 당산나무 2와 성벽 등은 잡목과 집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19그루 노거수만 남아 있는 당산숲에서 느티나무 당산목 세 그루와 곰솔 1그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팽나무이다. 마을주민들은 비보숲보다 당산숲을 더 소중히 하는 경향이 있다(최재웅 · 김동엽, 2009). 지역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당산제는 원래 정월초하루 저녁에 지냈으나, 마을회의에서 논의하여 4년 전 경부터는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지내고 있다. 당산제는 옛날부터 지내왔으나, 한동안 중지되었다가 당산제를 다시 모신지가 13년째이다.



그림 4. '영광 법성진 숲쟁이'의 구성요소.

2) 비보숲 1(성벽)

성벽의 비보숲 1은 북쪽의 산등성이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235m 길이의 성벽위에 열식되어 있는 곰솔림이다(그림 4c). 곰솔림 끝부분의 두 그루와 곰솔림 안에 세 그루 등 팽나무 고목 다섯 그루(평균흉고직경 89cm)가 성벽숲내에 있는 것을 고찰해 보면 원래 이 곰솔림은 팽나무를 위주로 한 낙엽활엽수림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의 고지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성벽 비보숲 가지는 낙엽이 진 낙엽수를 나타내고 있다. 수종 구성의 예를 보면, 고흥 신금마을의 당산숲은 상록활엽수림이고, 비보숲은 곰솔림인데, 이와 같이 비보숲은 단일 수종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최재웅 등, 2010). 주민면담 결과 현재

식재되어 있는 곰솔은 40~50여년 전 쯤 마을노인회에서 심었던 것으로서, 그 당시 팽나무, 느티나무 보다 유목을 구하기 쉬운 곰솔을 식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94그루의 곰솔 중에서 흉고직경 30cm 이하 35그루를 제외하고 남은 59그루의 평균흉고직경은 39cm이다.

3) 비보숲 2(성밖)

‘법성진 숲쟁이’라고 하면 보통 이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씨름, 그네뛰기 등의 법성포단오제 행사가 성밖 비보숲 2의 a, b에서 열리고 있다(그림 3). 이 축제는 400년 동안 주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전통축제로 알려져 있다. 한편, 2년 전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무속의식

표 2. 영광 법성진성 숲쟁이의 식생 현황.

구분	위치		면적(m ²)	식생	성벽 길이(m)	비고
당산숲	성안	서쪽 성벽 부분	9,600 (120×80m)	- 느티나무* : 3주 (120) - 팽나무* : 15주 (99) - 곰솔 : 1주 (63)	153	당산제 (정월대보름)
비보숲 1		북쪽 성벽	2,350 (235×10m)	- 곰솔 : 59주 (39) - 팽나무 : 5주 (89)	235	
동쪽 수목		동쪽 성벽	320 (32×10m)	- 팽나무 4주 (76)	56	
비보숲 2	성밖	a	3,465 (90×38.5m)	- 느티나무 : 41주 (76) - 팽나무 : 9주 (76) - 개서어나무 : 2주 (79)	없음	단오제 행사장
		b	5,377 (173×31m)	- 느티나무 : 37주 (77) - 팽나무 : 18주 (93) - 개서어나무 : 4주 (45)	없음	

* 당산목, 식생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평균흉고직경(cm)

인 ‘법성포수륙대제’가 40년 만에 복원된 바 있다. 법성진성 밖의 국도 좌우변에 방풍림으로 심어져 있으며, 수종은 a, b 모두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로 되어 있고 느티나무가 가장 많다(표 2).

4) 동쪽 수목

동쪽 성벽은 윗부분부터 56m가 남아 있는데, 성벽 54~56m 지점에 세 그루와 성벽 연장선인 86m 지점에 한 그루 등 팽나무 네 그루가 남아 있다(그림 3).

2. 「영광 법성진 숲쟁이」 주변 경관관리 문제점 고찰

1) 법성포구 갯벌의 미관적 가치

명승으로서의 법성진 숲쟁이를 논할 때, 숲쟁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조망대상 및 배경의 역할을 하는 갯벌이다. 법성진 숲쟁이가 명승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숲쟁이와 더불어 있는 갯벌의 조망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갯벌이 없었다면 숲쟁이 자체만으로는 최고의 경관 가치를 지닌 명소에 부여되는 명승의 지위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영광 법성진 숲쟁이 설명 사진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5a, 5b). 법성진성 바로 옆 서쪽에는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 존자가 바다 물길을 따라 입국하여 최초로 발을 디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가 있는데, 그 동산 위에 사면대불상

(그림 5c의 원형 표시) 등이 건립되는 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되어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포구의 갯벌 자리는 옛 조선의 수군 기지가 있던 유서깊은 곳이며, 어선이 정박 하는 등 경제활동의 터전으로서, 지역주민들은 이 갯벌에 의지하여 살아오고 있다.

2) 법성포구 갯벌 매립으로 인한 훼손

갯벌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중한 경관생태자원이다. 갯벌은 천연방파제의 역할을 하며 자연재해로부터 해안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 이 갯벌이 매립되고 건물이 들어선다면 해일 등의 자연재해시 들어온 포구 물길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해안가 마을을 침수시킬 위험이 큰데, 벌써 물길이 낮아져 배들이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 매립지에 설치된 ‘매립 준공 표지석’을 보면, 발주처는 영광군청으로서, 공사명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이다. 매립면적은 259,917m², 공사기간은 2003. 7. 21-2009. 8. 13로 되어 있다. 최재웅 등(2009)은 법성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갯벌매립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원상 복구가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어장·숲·호수·우물 등 사회의 공공재산은 사용자집단이 관리할 때 다른 방법들보다 더 잘 운영된다(Ostrom, 2009). 전승수(2007)는 토지획득용 방조제 건설 중단(1959년), 해안선 보호용 방조제 건설 중단(1987년), 기존 방조제 뒤에서



a : 숲쟁이 전경
(문화재청, 2010)



b : 법성포구 전경
(문화재청, 2010)



c : 마라난타 존자가 입국한 물길
(필자 촬영, 2010)

그림 5. 법성포구 갯벌의 아름다움.



a : 법성포 매립지 상가 분양 광고판 (2010)



b : 독일의 갯벌 보전과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무등일보, 2006. 8. 28)

그림 6. 법성포 갯벌 훼손과 독일의 갯벌 활용 사례.

만 주민보호용 사업(1987년) 등 독일의 해안보호 사업의 역사와, 유럽에서 간척사업이 불법화(不法化)되는 계기가 된 라이부흐트 갯벌을 소개한 바 있다. 독일의 모든 갯벌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인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2009년에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킨 바 있다. 독일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관리하면서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8천만 유로(1천억원 가량)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무등일보, 2006). 영광군의 경우 갯벌 매립으로 환경은 파괴되고 개발수익은 외지인들에게 돌아간다(그림 6a). 우리나라의 연안환경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연구, 이해되어야 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훼손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연안 환경의 활용과 관리는 반드시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의 결과로서,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강행된 다리 건설로 인해, 유네스코 제33차 세계유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상실당한 사례가 있다(문화재청, 2009).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때에만 현상변경을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명승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로부터 500m이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2008. 11. 6 문화재청 지침 제41호)에는, “첫째, 공통 검토기준으로서, ‘입지환경에 관한 검토사항’에서는, 지형, 하천, 해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가시권 확보 또는 지형의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현상대로 최대한 유지한다. 둘째, 특별 검토기준으로서, ‘마을숲 등의 수립’은 경관은 물론 마을과의 관계 및 기능을 고려한다. ‘명승·천연보호구역이 수계지역인 경우’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수변환경과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의 지양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영광 법성진 숲쟁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 같은 점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다(그림 7).

- 3)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 지침 제4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 09. 10) 제23조에는



그림 7. 포구 입구에서 바라 본 조망대상(갯벌 및 숲쟁이 원경)의 변천.

4) 범성진성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선 조망경관 확보에 대한 문제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백승석·김용기, 2002; 최종희, 2007; 김규연 등, 2007; 노재현 등, 2007; 백종철 등, 2008; 최종희 등, 2008; 임병을 등, 2009; 노재현 등, 2009). 문화재청 지침 제41호의 공통 검토기준에서, ‘입지환경에 관한 검토사항’ 외에 ‘조망권역에 관한 검토사항’이 있다. ‘조망권역에 관한 검토사항’으로서는, 1) 입지환경에 따라 조망점 및 조망구간, 조망대상(조망축)을 설정하고, 2)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3) 문화재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의 자료(그림 5a, 5b 참조)와 같이 포구 입구를 조망점 1, 포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범성진성 정상부를 조망점 2로 설정하였다. 범성포구는 도로 양쪽의 건물 등에 막혀 포구 입구까지는 갯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포구 입구에 들어서면 갯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사방이 확 트이고 파노라믹 경관이 나타난다. 포구 입구는 갯벌과 범성진성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이므로, 이 곳을 조망점 1로 선정하였다. 범성진성 정상부의 팔각정에서는 외부 조망대상인 범성포구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이 곳을 조망점 2로 선정하였다. 2010년 6월 현재 갯벌 매립공사가 끝나고 그 위에 4층 건물 하나, 7층의 모텔 건물 둘, 3층 건물(떡집) 하나 등 건물 4개가 신축되어 있다. 갯벌이 매립됨에 따라, 조망점 1, 2에서 바라보는 갯벌 경관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그림 7 및 표 3). 매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립이 이미 끝나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현시점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조망점 1에서 범성진성이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보일 수 있도록 조망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범성진성에는 ‘범성진성 횡단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위쪽에는 당산숲, 성벽 비보숲이 있고, 아래에는 마을집들이 있다(그림 3). 따라서 ‘범성진성 횡단도로’ 아래쪽은 가려지더라도, 그 위쪽은 조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향각 또는 양각(仰角)은 조망대상물(여기서는 범성진성 숲쟁이 하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으로서, 수치지형도와 Auto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조망점 1에서 범성진 숲쟁이

표 3. 매립공사 후 각 조망점에서 영광 범성진 숲쟁이에 대한 조망권 고찰.

조망점 위치	조망대상(조망축)	조망 가시성	조망권 확보 방안
조망점 1	- 갯벌 - 범성진성	- 상실 - 매립지 건물 높이 여하	- 없음 - 신축건물 고도제한선 설정
조망점 2	- 갯벌	- 상실	- 없음

표 4. 조망점 1에서 법성진성 숲쟁이 조망권 확보를 위한 상향각 및 고도제한 높이 고찰.

구분	해발 높이 (m)	조망점 1부터의 거리(m)	매립지 고도제한 높이(m)	상향각 (°)
조망점 1	5			1.9
매립지 3층 건물	4.5	390	12.3	
법성진성 횡단도로 (도로 위 부터 당산숲 부분)	42.2	858		
정상부	67.1	993		

를 볼 수 있는 상향각은 1.9°로 측정되었으며, 단면도로 나타내면 그림 8a와 같다. 현 매립지 3층 건물 높이는 상향각 1.9°의 조망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조망점 1에

서 법성진 숲쟁이가 조망되기 위한, 현 매립지 3층 건물의 최대 높이는 12.3m로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조망점 1에서 법성진성 숲쟁이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건축물의 높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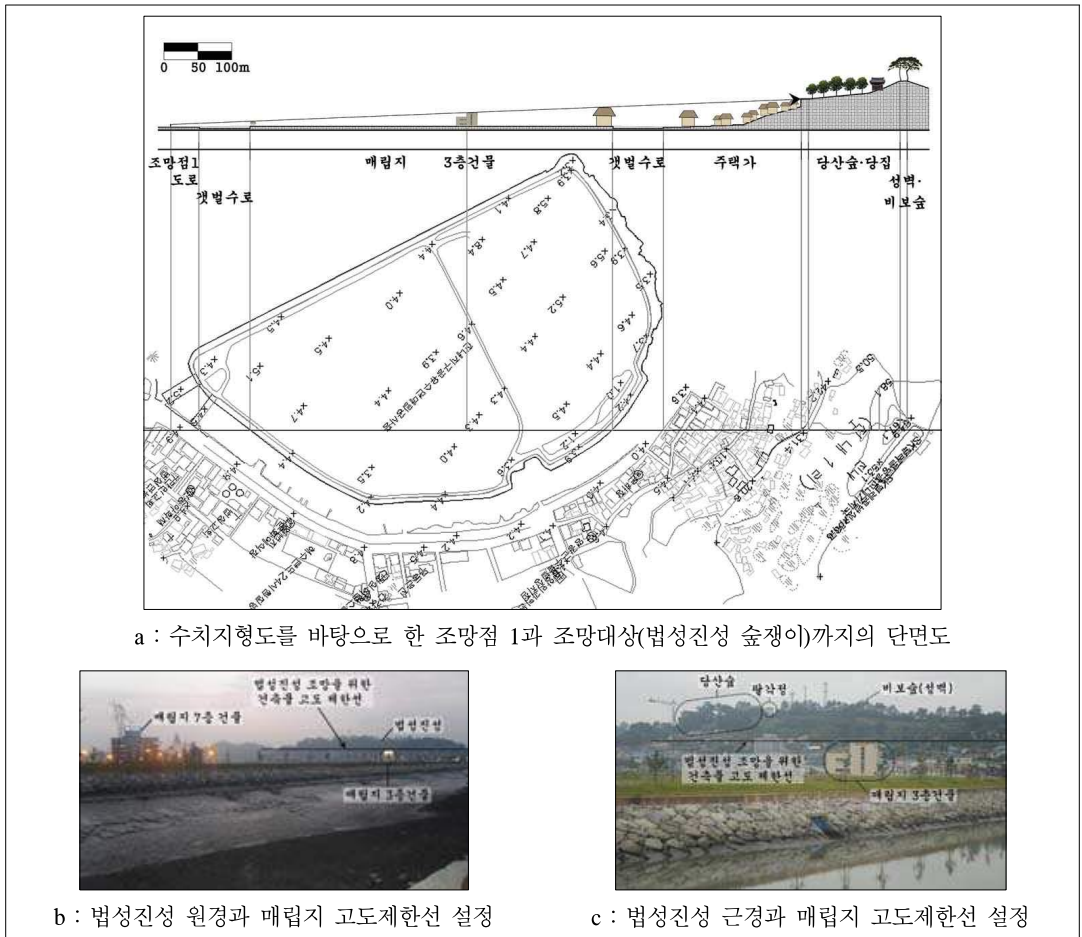


그림 8. 조망점 1에서 법성진성 조망을 위한 매립지 건축물 고도제한선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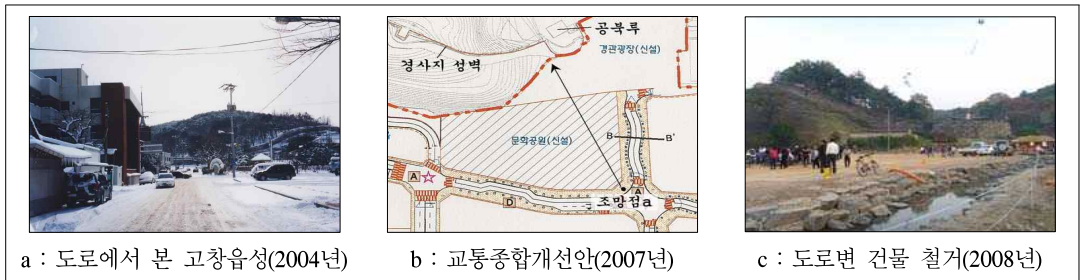


그림 9. 고창읍성에 대한 조망권(조망축) 확보 조치.

상향각 1.9°의 조망선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건축물의 고도제한선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창군 고창읍성(모양성)은 큰 길가 교차로 부분에서 볼 때, 좌측의 건물들에 의해 가려져서, 성의 정문인 공복루와 산비탈 경사면에 있는 성벽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그림 9a). 고창군은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통해 고창읍성 주변 리모델링과 종합정비에 의한 역사문화거점지구를 조성을 추진하였다(2005). 이 제안서에서는 읍성 일원의 상가 정비, 가로경관의 개선 및 읍성경관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후 ‘고창 군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해 그림 9a의 도로 좌측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계획(그림 9b의 빗금 표시 부분)을 결정하였다(2007). 공원으로 바꾼 변경 사유는 방문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없으나, 이러한 건물 철거 조치는 조망권 확보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다(그림 9b의 조망선 참조). 2008년 답사에서 이 건물들이 철거되었으며, 그 결과 교차로가 있는 조망점 a에서 고창읍성 성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9c). 고창군의 이러한 시책은 법성진성 조망권 확보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명승 제22호인 ‘영광 법성진 숲쟁이’를 구성하고 있는 당산숲·비보숲과 포구 갯벌에 대한 현상 파악 및 갯벌 매립에 따른 현상 변경 실태와 조망권 분석을 통해 명승으로서의 법성진성 경관을 보전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당산숲·비보숲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으나 당산나무가 있는 부분의 곡성 등 법성진성의 성벽과 노거수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당산제 전통이 마을주민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성벽숲 아래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팽나무, 느티나무 등 낙엽활엽수를 열식하여 원래의 경관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갯벌은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국립생태공원으로 보전,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성포 갯벌이 매립됨에 따라 숲쟁이의 경관 가치도 훼손되고 말았다. 조망점에서 갯벌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은 상실되었지만, 법성진성이 가려지지 않고 보일 수 있도록 매립지에 대한 신축 건축물의 고도제한선을 설정하고 경관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성진성이 가려지지 않고 보일 수 있는 상향각은 1.9°로 측정되었으며, 법성진 숲쟁이가 조망되기 위한, 현 매립지 3층 건물의 최대 높이는 12.3m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법성진성 숲쟁이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지 건축물의 높이는 상향각 1.9°의 조망선 아래에 있

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건축물의 고도제한선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 용 문 헌

강현경 · 방광자 · 이승제 김학범. 2004.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마을숲의 관리방안. -경상도와 강원도의 주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2) : 63-74.

고창군. 2005. 고창군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고창군. 2007. 고창 군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김규연 · 이경호 · 김한옥 · 박동석 · 최종희. 2007. 도심지에 위치한 사적지 일원의 경관보전 · 관리방안-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 38-79.

김학범. 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연화 · 윤영환. 2002.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본 마을 숲의 변천과 보존-성남리 성황림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정원학회지 20(2) : 23-32.

노재현 · 신상섭 · 조찬문. 2007. 八景 構造分析을 통해 본 傳統文化景觀 眺望圈域에 대한 實證의 研究. -임실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 11-23.

노재현 · 신상섭 · 허준 · 최종희 · 김정문 · 박봉주 · 조운연. 2009.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구역의 유형화 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2) : 21-30.

문화재청 지침 제41호. 200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문화재청 지침서.

문화재청. 2009. 「드레스덴 엘베계곡」 유네스코 세계유산 삭제. -제33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 최종 결정-. 문화재청 보도자료(6. 26).

박재철. 1998. 전북 농어촌 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6(2) : 133-142.

백승석 · 김용기. 2002.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

상변경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1) : 43-50.

백종철 · 조운연 · 나명하(200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4) : 74-84.

신상섭. 2004. 전통정주지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외암마을과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 27-38.

윤영환 · 김학범 · 장동수 · 김정태. 1998. 강원도 동해안지역 정주지 구성요소로서 풍숲(風藪)의 경관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1) : 59-81.

이상훈. 2005. 마을 숲의 사회학적인 의미-진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pp.23-51.

이원열 · 서호석 · 이대섭 · 조현재. 1992. 전통생활환경보전림의 실태 및 보존대책. 임업연구원 보고서 pp.25-33.

임병을 · 심우경 · 최종희. 2009. 김포 장릉(章陵)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실태 및 경관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보존 · 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3) : 18-29.

장동수 · 김학범. 1995. 韓國 傳統都市의 變遷特性과 要因에 관한 研究.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3(1) : 1-11.

전승수. 200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안환경의 연안개발 관리방향. 지속가능한 연안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p.65-81.

최재용 · 김동엽. 2000.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3) : 51-64.

최재용 · 김동엽. 2009.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 35-47.

최재용 · 김동엽 · 김미희. 2009. 농어촌마을 당산숲 · 비보숲의 형태지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3) : 30-38.

- 최재웅 · 김동엽 · 김미희 · 박광래. 2009. 영광군 법성진성 당산숲 · 비보숲의 보전 및 관리 방안 고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69-75.
- 최재웅 · 김동엽 · 김미희 · 박광래 · 강방훈. 2010. 전통조경양식으로서 고흥군 신금마을 당산숲 · 비보숲의 실태 고찰.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17-121.
- 최종희. 2007.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 72-79.
- 최종희 · 김규연 · 김홍년. 2008. 홍유릉(洪裕陵)의 현상변경 실태 및 경관가시성 · 토지이용을 고려한 경관보존 · 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3) : 24-40.
- E. Ostrom. 2009. *A Genetal Framework for Analyzing Sustainability of Social-Ecological Systems*. Science, 325 : 419-422.
- Jai-Ung Choi, Dong-Yeob Kim, Young-Bo Sagong, Mi-Heui Kim, Byeong-Do Park and Kwang-Lai-Park. 2009. Reformation a Dangsang Forest at Seashore of Daebang Village, Sacheon, Korea. 2009 INCHEON IFLA APR Congress Proceeding : pp.163-168.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5,00220000,36\(문화재청 홈페이지-영광법성진숲쟁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5,00220000,36(문화재청 홈페이지-영광법성진숲쟁이)).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_photo_list.jsp?VdkVgwKey=15%2c00220000%2c36&queryText=&mc=KS_01_02_01&VdkVgwKey\(문화재청 홈페이지-영광법성진숲쟁이, 법성포구 전경\)](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_photo_list.jsp?VdkVgwKey=15%2c00220000%2c36&queryText=&mc=KS_01_02_01&VdkVgwKey(문화재청 홈페이지-영광법성진숲쟁이, 법성포구 전경)).
- [http://www.honam.co.kr/\(2006년 인터넷 무등일보-영산강 하구둑 바꾸자-4.어업실태\)](http://www.honam.co.kr/(2006년 인터넷 무등일보-영산강 하구둑 바꾸자-4.어업실태)).
- [http://www.jnilbo.com/\(2007년 인터넷 전남일보-2007바다를 살리자-‘몸살앓는’ 연안 관리 어디까지\)](http://www.jnilbo.com/(2007년 인터넷 전남일보-2007바다를 살리자-‘몸살앓는’ 연안 관리 어디까지)).
- [http://www.yg.go.kr/tour/?ur1=s2/s1.php\(영광군청 홈페이지-법성항 주변관광지\)](http://www.yg.go.kr/tour/?ur1=s2/s1.php(영광군청 홈페이지-법성항 주변관광지)).